

성격유형과 해부학 관련 교과 학업성취도의 차이분석

유효현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실

(2014년 6월 24일 접수, 2014년 8월 13일 수정접수, 2014년 9월 5일 게재승인, Published Online 30 September 2014)

간추림 : 본 연구목적은 의전원 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과 해부학 관련 교과목 학업성취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해부학 교육에서 성격검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9, 2010, 2011학년도에 1학년이었던 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검사와 해부학 관련 교과목들의 성적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격유형은 한국대학생과 한국 일반인들의 분포와 유사했고, 성격유형별 해부학 관련 교과 학업성취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격유형으로 해부학 관련 교과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개인의 성격적 특징으로만 인식하여 생활지도, 학습지도,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등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찾아보기 낱말 : MBTI, 성격유형, 해부학, 학업성취도

서 론

의과대학생들이 의과대학의 다양한 교육과정마다의 학습성과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학업성취도이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업성취도는 학생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데, 학교와 가정 등 학생을 둘러싼 환경특성보다는 학생 개인 특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학생 개인 특성에는 학습동기, 학습태도, 학습양식, 가치관 등 다양하고, 이런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학습자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1].

성격은 인간 개인마다 갖고 있는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많은 학자들이 조작적으로 성격을 정의내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리하면 성격은 개인이 환경에서 주어지는 자극들에 대하여 나타내는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독특성을 특징으로 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고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성격에 대한 정의, 구성요소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국내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검사도구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가 있다.

MBTI는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인식기능),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판단기능) 각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개발되었다. MBTI는 4가지 양극적 선호경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방향에 따라 외향형(E, Extraversion)과 내향형(I, Introversion), 인식기능에 따라 감각형(S, Sensing)과 직관형(N, iNruition), 판단기능 사고형(T, Thinking)과 감정형(F, Feeling), 생활양식에 따라 판단형(J, Judging)과 인식형(P, Perceiving)으로 나누어지고,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둘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4가지 선호지표를 조합하여 16가지 성격유형으로 분류한다[3].

MBTI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방법, 학습양식 등에 맞는 학습지도에 활용되고, 교수자에게는 학생들의 상담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수방법 등에 활용되고 있다[3,4] 더불어 MBTI는 대인관계방식, 의사소통유형, 학업성취도, 전공 및 직업선택, 만족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려져 있다[5,6]. 의과대학생의 MBTI는 입학성적인 MEET와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성취와 관계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교신저자 : 유효현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실)
전자우편 : hhyoo@jbnu.ac.kr

Table 1. Frequency of index

		E	I	S	N	T	F	J	P
Total	N (%)	159 (46.2)	185 (53.8)	264 (76.7)	80 (23.3)	227 (66.0)	117 (34.0)	232 (67.4)	112 (32.6)
2009	N (%)	54 (47.8)	59 (52.2)	83 (73.5)	30 (26.5)	66 (58.4)	47 (41.6)	64 (56.6)	49 (43.4)
2010	N (%)	51 (45.1)	62 (54.9)	86 (76.1)	27 (23.9)	85 (75.2)	28 (24.8)	81 (71.7)	32 (28.3)
2011	N (%)	54 (45.8)	64 (54.2)	95 (80.5)	23 (19.5)	76 (64.4)	42 (35.6)	87 (73.7)	31 (26.3)

Table 2. Frequency of function, disposition

		Function				Disposition			
		ST	SF	NT	NF	SJ	SP	NT	NF
Total	N (%)	185 (53.8)	79 (23.0)	42 (12.2)	38 (11.0)	198 (57.6)	66 (19.2)	42 (12.2)	38 (11.1)
2009	N (%)	47 (41.6)	36 (31.9)	19 (16.8)	11 (9.7)	51 (45.1)	32 (28.3)	19 (16.8)	11 (9.7)
2010	N (%)	69 (61.1)	17 (15.0)	16 (14.2)	11 (9.7)	72 (63.7)	14 (12.4)	16 (14.2)	11 (9.7)
2011	N (%)	69 (58.5)	26 (22.0)	7 (5.9)	16 (13.6)	75 (63.6)	20 (16.9)	7 (5.9)	16 (13.6)

Table 3. Frequency of personality type

	Total (N, %)	2009 (N, %)	2010 (N, %)	2011 (N, %)
ISTJ	87 (25.29)	18 (15.9)	38 (33.6)	31 (26.3)
ISFJ	25 (7.27)	13 (11.5)	4 (3.5)	8 (6.8)
INFJ	6 (1.74)	1 (0.9)	2 (1.8)	3 (2.5)
INTJ	13 (3.78)	6 (5.3)	3 (2.7)	4 (3.4)
ISTP	20 (5.81)	9 (8)	3 (2.7)	8 (6.8)
ISFP	12 (3.49)	5 (4.4)	3 (2.7)	4 (3.4)
INFP	12 (3.49)	3 (2.7)	5 (4.4)	4 (3.4)
INTP	10 (2.91)	4 (3.5)	4 (3.5)	2 (1.7)
ESTP	15 (4.36)	8 (7.1)	5 (4.4)	2 (1.7)
ESFP	19 (5.52)	10 (8.8)	3 (2.7)	6 (5.1)
ENFP	14 (4.07)	6 (5.3)	4 (3.5)	4 (3.4)
ENTP	10 (2.91)	4 (3.5)	5 (4.4)	1 (0.8)
ESTJ	63 (18.31)	12 (10.6)	23 (20.4)	28 (23.7)
ESFJ	23 (6.69)	8 (7.1)	7 (6.2)	8 (6.8)
ENFJ	6 (1.74)	1 (0.9)	0 (0)	5 (4.2)
ENTJ	9 (2.62)	5 (4.4)	4 (3.5)	0 (0)

등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이 있다[7]. 그러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의과대학의 교과목에 대한 학년별 전체 시험의 평균에 초점을 두고 학업성취도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보다 세분화하여 성격유형과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가장 먼저 학습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에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인 해부학 관련 과목의 학업성취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해부학 교육에서의 활용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자는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2009, 2010, 2011학년도에 1학년이었던 학생으로서

MBTI 검사를 받고 각 필기시험과 실습시험 성적이 있는 344명이다. 2009년도는 113명 2010년도 113명, 2011년도 118명이고, 성별로는 남학생은 148명 (43%), 여학생은 196명 (57%)이다. 연령은 평균 29.6세으로 24세~29세 (76.5%)가 가장 많았으며, 학부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열 177명 (51.5%), 인문사회계열 64명 (18.6%), 공과계열 58명 (16.9%), 예체능계열 5명 (1.5%), 보건의료계열 40명 (11.6%)이다.

성격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Jung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Myers와 Briggs가 개발한 성인용 MBTI GS형을 사용하였다. 총 9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지와 자기 채점식 답안용지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자들에게 MBTI 검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 성격유형 답안지 계산법을 알려주고 개인별로 점수를 환산하여 프로파일을 작성하였다.

Table 4. Difference of anatomy academic achievement by index (written test)

	Index	N	Mean	SD	F	p
Histology (written test)	E	159	71.83	11.01	2.00	0.16
	I	185	73.38	9.43		
	S	264	72.69	10.02	0.01	0.92
	N	80	72.57	10.86		
	T	227	72.79	9.92	0.10	0.75
	F	117	72.42	10.77		
Anatomy (written test)	J	232	72.70	10.00	0.01	0.92
	P	112	72.58	10.67		
	E	159	79.63	8.57	0.43	0.51
	I	185	80.24	8.62		
	S	264	79.74	8.42	0.72	0.40
	N	80	80.68	9.15		
T	227	79.93	8.23	0.01	0.92	
F	117	80.03	9.28			
Embryology (written test)	J	232	80.36	8.06	1.57	0.21
	P	112	79.13	9.59		
	E	159	74.21	12.26	1.25	0.27
	I	185	75.59	10.64		
	S	264	75.04	10.90	0.06	0.80
	N	80	74.67	13.07		
T	227	74.24	11.64	2.56	0.11	
F	117	76.32	10.89			
Neuro anatomy (written test)	J	232	75.22	11.22	0.39	0.53
	P	112	74.39	11.85		
	E	159	74.87	11.69	1.95	0.16
	I	185	76.54	10.50		
	S	264	75.84	11.05	0.05	0.82
	N	80	75.52	11.25		
T	227	75.50	11.16	0.39	0.53	
F	117	76.29	10.95			
Written test total	J	232	76.40	10.88	2.31	0.13
	P	112	74.46	11.42		
	E	159	75.15	9.28	1.62	0.20
	I	185	76.37	8.45		
	S	264	75.80	8.66	0.00	0.99
	N	80	75.81	9.51		
T	227	75.62	8.74	0.29	0.59	
F	117	76.16	9.08			
J	232	76.10	8.74	0.79	0.38	
P	112	75.20	9.08			

학업성취도는 매년 해부학과 관련된 교과에 필기와 실습 진행 후 평가를 하였다. 해부학, 조직학, 발생학, 신경해부학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었고, 해부학 실습과 조직학 실습은 실습 후 30초 간격으로 지정된 구조물을 작성하는 식의 일명 맹시 방법으로 이루어진 평가 결과

Table 5. Difference of anatomy academic achievement by index (practice test)

	Index	N	Mean	SD	F	p
Histology (practice test)	E	159	85.75	8.02	2.11	0.15
	I	185	86.94	7.11		
	S	264	86.33	7.55	0.09	0.77
	N	80	86.61	7.62		
	T	227	86.81	7.43	2.05	0.15
	F	117	85.58	7.78		
Anatomy (practice test)	J	232	86.15	7.79	0.73	0.39
	P	112	86.89	7.07		
	E	159	76.18	19.28	0.95	0.33
	I	184	78.08	16.87		
	S	264	76.47	18.01	1.88	0.17
	N	79	79.63	17.95		
T	227	77.66	17.55	0.44	0.51	
F	116	76.29	18.96			
Practice test total	J	231	76.53	18.24	0.97	0.33
	P	112	78.57	17.56		
	E	159	81.14	12.95	1.46	0.23
	I	185	82.70	10.85		
	S	264	81.57	11.85	1.34	0.25
	N	80	83.33	11.91		
T	227	82.44	11.43	0.99	0.32	
F	117	81.09	12.70			
J	232	81.54	12.12	0.96	0.33	
P	112	82.88	11.33			

를 표준화점수(t)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여 성격유형의 지표별, 기질별, 기능별, 유형별 빈도분석과 성격유형별 해부학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결 과

1. MBTI 지표별, 기질별, 성격유형별 빈도

연구대상자의 MBTI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표별로는 태도지표(E/I)에서는 내향형(I, 53.8%)이 외향성(E, 46.2%)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인식과정(S/N)에서는 감각형(S, 76.7%)이 직관형(N, 23.3%)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판단과정(T/F)은 사고형(T, 66.0%)이 감정형(F, 34.0%)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대처양식(J/P)에서는 판단형(J, 67.4%)이 인식형(P, 32.6%)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1). 기질별로는 분석한 결과, SJ

Table 6. Difference of anatomy academic achievement by function, disposition (written test)

Subject	Type		N	Mean	SD	F	p
Histology (written test)	Function	ST	185	72.84	9.69	0.05	0.99
		SF	79	72.33	10.81		
		NT	42	72.54	11.00		
		NF	38	72.59	10.84		
	Disposition	SJ	198	73.08	9.54		
		SP	66	71.52	11.33		
		NT	42	72.54	11.00		
		NF	38	72.59	10.84		
Anatomy (written test)	Function	ST	185	79.99	8.14	0.83	0.48
		SF	79	79.17	9.06		
		NT	42	79.65	8.72		
		NF	38	81.81	9.60		
	Disposition	SJ	198	80.36	7.90		
		SP	66	77.91	9.65		
		NT	42	79.65	8.72		
		NF	38	81.81	9.60		
Embryology (written test)	Function	ST	185	74.22	11.06	1.10	0.35
		SF	79	76.95	10.31		
		NT	42	74.37	14.06		
		NF	38	75.00	12.05		
	Disposition	SJ	198	75.24	10.81		
		SP	66	74.41	11.22		
		NT	42	74.37	14.06		
		NF	38	75.00	12.05		
Neuro anatomy (written test)	Function	ST	185	75.72	11.22	0.29	0.83
		SF	79	76.12	10.70		
		NT	42	74.50	10.95		
		NF	38	76.64	11.61		
	Disposition	SJ	198	76.59	10.65		
		SP	66	73.60	11.96		
		NT	42	74.50	10.95		
		NF	38	76.64	11.61		
Written test total	Function	ST	185	75.70	8.61	0.14	0.94
		SF	79	76.04	8.82		
		NT	42	75.26	9.42		
		NF	38	76.42	9.71		
	Disposition	SJ	198	76.24	8.40		
		SP	66	74.48	9.32		
		NT	42	75.26	9.42		
		NF	38	76.42	9.71		

형이 57.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SP (19.2%), NT (12.2%), NF (11.1%)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별로는 ST형이 53.8%로 가장 높았고, SF (23.0%), NT (12.2%), NF (11.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16가지 성격유형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ISTJ (25.3%), ESTJ (18.3%)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ENFJ (1.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3). 3년간 학생들의 성격유형 분포는 유사하였고, 더불어 전반적으로 일반 우리나라 성격 유형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7. Difference of anatomy academic achievement by function, disposition (practice test)

Subject	Type		N	Mean	SD	F	p
Histology (practice test)	Function	ST	185	86.51	7.61	1.36	0.25
		SF	79	85.90	7.43		
		NT	42	88.14	6.45		
		NF	38	84.92	8.51		
	Disposition	SJ	198	86.15	7.81		
		SP	66	86.86	6.75		
		NT	42	88.14	6.45		
		NF	38	84.92	8.51		
Anatomy (practice test)	Function	ST	185	76.35	17.89	1.96	0.12
		SF	79	76.73	18.43		
		NT	42	83.40	14.86		
		NF	37	75.35	20.27		
	Disposition	SJ	198	76.46	17.69		
		SP	66	76.48	19.10		
		NT	42	83.40	14.86		
		NF	37	75.35	20.27		
Practice test total	Function	ST	185	81.66	11.68	1.81	0.14
		SF	79	81.37	12.33		
		NT	42	85.86	9.65		
		NF	38	80.53	13.58		
	Disposition	SJ	198	81.49	11.91		
		SP	66	81.82	11.75		
		NT	42	85.86	9.65		
		NF	38	80.53	13.58		

2. MBTI 성격유형과 해부학 학업성취도의 차이

의과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해부학 관련 교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9와 같다. 학업성취도의 차이분석 결과, 지표별, 기능별, 기질별, 성격유형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p > .05$)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필기시험과 실습시험에서 내향형 (I)이 외향형 (E)보다 평균적으로는 약간 높고, 필기시험에서는 감각형 (S)과 직관형 (N)이 거의 비슷하지만 실습시험에서는 감각형 (S)보다는 직관형 (N)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필기시험에서 감정형 (F)이 사실형 (T)보다 평균적으로는 약간 높고, 실습시험에서는 사실형 (T)이 감정형 (F)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필기시험에서 판단형 (J)이 인식형 (P)보다 평균적으로는 약간 높고, 실습시험에서는 인식형 (P)이 판단형 (J)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기질과 기능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필기시험에서는 NF, 실기시험에서는 NT가 높게 나타났다. 16가지 성격유형별로는 필기시험에서는 INFJ, 실기시험에서는 ENTP가 높게 나타났고, 필기시험

Table 8. Difference of anatomy academic achievement by personality types (written test)

	Type	N	Mean	SD	F	P		Type	N	Mean	SD	F	P		
Histology (written test)	ISTJ	87	74.02	8.07	0.72	0.77	Neuro anatomy (written test)	ISTJ	87	77.02	10.14	1.11	0.34		
	ISFJ	25	75.20	9.27				ISFJ	25	78.52	10.96				
	INFJ	6	74.23	11.05				INFJ	6	83.07	4.30				
	INTJ	13	68.43	13.25				INTJ	13	72.51	11.55				
	ISTP	20	71.77	11.03				ISTP	20	75.96	9.93				
	ISFP	12	71.88	8.77				ISFP	12	71.43	11.13				
	INFP	12	73.75	10.52				INFP	12	76.18	11.54				
	INTP	10	73.82	10.96				INTP	10	76.43	11.87				
	ESTP	15	71.42	13.05				ESTP	15	68.79	17.14				
	ESFP	19	71.11	12.46				ESFP	19	76.28	8.49				
	ENFP	14	72.27	10.16				ENFP	14	73.48	11.09				
	ENTP	10	77.39	5.93				ENTP	10	77.50	8.28				
	ESTJ	63	71.90	10.44				ESTJ	63	75.51	10.97				
	ESFJ	23	70.47	11.86				ESFJ	23	75.82	11.63				
	ENFJ	6	69.40	14.74				ENFJ	6	78.55	16.85				
ENTJ	9	71.67	11.07	ENTJ	9	71.89	12.22								
Anatomy (written test)	ISTJ	87	81.47	7.14	1.26	0.23	Written test total	ISTJ	87	76.84	7.53	0.70	0.79		
	ISFJ	25	80.49	8.90				ISFJ	25	78.20	8.57				
	INFJ	6	85.60	5.03				INFJ	6	80.50	6.66				
	INTJ	13	77.08	8.61				INTJ	13	72.62	10.49				
	ISTP	20	76.92	9.86				ISTP	20	74.85	9.74				
	ISFP	12	79.86	8.20				ISFP	12	74.75	7.47				
	INFP	12	78.10	12.82				INFP	12	75.50	9.95				
	INTP	10	79.54	11.86				INTP	10	76.10	10.34				
	ESTP	15	75.95	11.58				ESTP	15	72.20	11.22				
	ESFP	19	79.28	8.92				ESFP	19	75.74	8.68				
	ENFP	14	83.24	5.34				ENFP	14	75.71	8.76				
	ENTP	10	82.20	5.41				ENTP	10	77.90	6.14				
	ESTJ	63	79.89	7.48				ESTJ	63	75.24	8.86				
	ESFJ	23	77.29	10.00				ESFJ	23	74.61	9.88				
	ENFJ	6	82.10	12.86				ENFJ	6	75.83	14.55				
ENTJ	9	80.67	8.19	ENTJ	9	75.22	10.29								
Embryology (written test)	ISTJ	87	74.98	9.98	0.70	0.79									
	ISFJ	25	80.24	9.38											
	INFJ	6	80.30	7.14											
	INTJ	13	72.06	12.84											
	ISTP	20	74.50	13.62											
	ISFP	12	75.72	7.41											
	INFP	12	74.44	12.40											
	INTP	10	74.41	11.40											
	ESTP	15	71.21	10.67											
	ESFP	19	76.01	11.14											
	ENFP	14	73.92	11.44											
	ENTP	10	74.90	17.72											
	ESTJ	63	73.79	11.81											
	ESFJ	23	74.81	11.55											
	ENFJ	6	73.33	17.42											
ENTJ	9	77.07	15.79												

에서는 INTJ, 실기시험에서는 ENFJ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찰

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과 해부학과 관련된 교과 학업성취도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해

부학 교육에서 성격검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최근 3년간 입학한 학생들의 성격유형은 지표별로는 내향형(I), 감각형(S), 사고형(T), 판단형(J)이 반대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고, 기질별로는 SJ, 기능별로는 ST, 유형별로는 ISTJ, ESTJ 순으로 학생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의 성격유

Table 9. Difference of anatomy academic achievement by personality types (practice test)

	Type	N	Mean	SD	F	P
Histology (practice test)	ISTJ	87	87.44	7.57	1.71	0.05
	ISFJ	25	87.08	6.32		
	INFJ	6	88.33	3.50		
	INTJ	13	86.38	8.05		
	ISTP	20	86.30	4.95		
	ISFP	12	87.42	6.46		
	INFP	12	83.50	9.17		
	INTP	10	87.00	7.70		
	ESTP	15	90.00	4.28		
	ESFP	19	84.63	9.22		
	ENFP	14	87.43	7.74		
	ENTP	10	90.30	3.06		
	ESTJ	63	84.46	8.51		
	ESFJ	23	84.87	7.52		
	ENFJ	6	78.50	9.83		
ENTJ	9	89.56	4.88			
Anatomy (practice test)	ISTJ	87	79.15	15.72	1.59	0.07
	ISFJ	25	79.40	15.77		
	INFJ	5	67.80	22.84		
	INTJ	13	77.15	22.17		
	ISTP	20	72.00	21.23		
	ISFP	12	80.33	14.03		
	INFP	12	77.33	15.53		
	INTP	10	82.10	14.26		
	ESTP	15	81.53	16.03		
	ESFP	19	74.79	21.56		
	ENFP	14	81.29	19.14		
	ENTP	10	86.50	3.47		
	ESTJ	63	72.63	19.31		
	ESFJ	23	73.57	20.60		
	ENFJ	6	63.83	27.10		
ENTJ	9	90.44	4.39			
Practice test total	ISTJ	87	83.53	10.60	1.69	0.05
	ISFJ	25	83.16	10.53		
	INFJ	6	80.17	12.58		
	INTJ	13	81.77	13.16		
	ISTP	20	79.35	11.55		
	ISFP	12	84.00	9.28		
	INFP	12	80.67	11.61		
	INTP	10	84.60	10.76		
	ESTP	15	85.93	8.58		
	ESFP	19	79.79	14.81		
	ENFP	14	84.50	12.92		
	ENTP	10	88.60	2.67		
	ESTJ	63	78.79	13.10		
	ESFJ	23	79.35	13.48		
	ENFJ	6	71.33	18.16		
ENTJ	9	90.11	4.51			

형 분포[8]와 한국인의 일반적인 성격유형의 분포, 의학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들에서도 유사한 분포가 나타났다[7,9-11].

지표, 기질, 기능, 성격유형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유형 중 공통적으로 많은 것이 사고형(S)이다. 사고형(T)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영국의 의과대학 졸업생들과

한국의 의과대학 졸업생들과 비교했을 때, 둘 다 사고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능별 성격유형의 특징에 근거할 수 있다. 기능별 성격유형 중 가장 높은 ST유형은 실제적이고 사실중심적 유형으로 계획적인 학습과 반복적인 주입식 학습, 실습, 기계적 도구나 자료를 활용한 실제적 경험 학습을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3]. 따라서 문화권이 달라 사고형과 의과대학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표, 기질, 기능, 성격유형별로 해부학 관련 교과 학습성취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별로 학년 또는 학기 과목들의 종합 학습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내향형(I)이 외향형(E)보다 학습성취도가 높고, 기능과 기질의 SJ, ST형들이 학습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지만[7,13] 해부학 관련 교과의 학습성취도만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지만 해부학 학습성취도에서도 내향형(I)이 외향형(E)보다 높은 경향성은 보였다. 반면 선행연구와는 달리 기능과 기질의 NF는 필기시험에서, NT는 실기시험에서, 16가지 성격유형별로는 필기시험에서는 INFJ, 실기시험에서는 ENTP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가 상반된 경향성을 나타낸 것은 해부학 관련 과목만의 특성을 반영한 필기와 실습시험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해부학 관련 학습성취도에서는 공통적으로 직관형(N)이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직관형(N)은 통찰을 통해 가능성, 의미, 관계를 인식하는 유형으로 전체적인 것에 기초하여 학습하는 양식을 선호한다[3]. 구체적인 부분을 학습하기 전에 전체 밑그림 즉 나무보다는 숲을 알기를 원하는 학습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람을 3차원으로 학습해야 하고, 머리, 가슴 등 부분으로 나누어서 학습한 내용 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연결, 통합하여 사람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해부학 수업과 평가의 특징 때문일 것이라 사료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고형(S)과 ST유형의 학습성취도에 주목하던 것과는 다르게 해부학 관련 교과의 학습성취도에서 직관형(N)과 NT와 NF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경향성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성격유형에 따라서 학습성취도를 예측하는 것은 교육장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성격검사를 통한 결과는 학생 성격의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분만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성격을 성격검사 결과가 전부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교수자로서 지양해야 하는 태도이다. 의전원에 입학하여 가장 먼저 접하

는 교수진은 해부학교실의 교수진들이고, 첫 의학공부이며, 첫 의과대학의 시험을 경험하는 것은 해부학 관련 교과들이다. 호기심과 부담감, 불안감 등을 가지고 시작하는 의전원 학생들에게 해부학 교수진들은 생활지도, 학습지도,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등에 성격유형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에게 적합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성격유형검사 결과로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격유형은 학업성취도가 아닌 개인의 성격적 특징으로만 인식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일부 지역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MBTI와 학업성취도 간의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성격요인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성격유형별로 해부학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해부학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Myers IB, McCaulley MH, Most R.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2nd ed. Palo Alto, US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5.
2. No AY, Kang YS. Personality Psychology. Seoul: Hakjisa; 2009.
3. Kim JT, Sim HS, Je SB.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Korea Institute of Psychological Testing; 1995.
4. Provost JA, Carson BH, Beidler PG. Teaching excellence and type. J Psychology Type. 1987; 13:23-33.
5. Lee YH, Kim DK.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s of denta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009; 16:179-96.
6. Lim KY, Cho SM. Students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medical career decision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02; 17:107-19.
7. Kim S, Kim JH, Hur YR. A proposal on educational method of studying by comparing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class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05; 17:107-19.
8. Kim JT, Sim HS. A study of Korean standardization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999; 3:44-72.
9. Ihm JJ, Park BY, Lee G, Jin BH. Transfer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a graduate-entry dental school.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12; 24:241-6.
10. Lim JY, Yoo IY, Oh SN.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SAT score and GPA of studen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1; 31:835-45.
11. Jung HK, Kim MS, Yoo YJ, Kim SO, Won DY.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07; 13:516-25.
12. Oh YK, Jang JY, Park SH, Ryu S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 premedical students. Medical Journal. 2007; 32:19-27.
13. Kim 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study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999; 11: 271-84.

Difference Analysis of Study Achievement in Course Related to Anatomy by Personality Type

Hyo Hyun Yoo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e difference of study achievement in course related to anatomy by personality type and to suggest application plan for anatomy education. We conducted a survey of 344 of the junior class in 2009, 2010, 2011 to get the results of MBTI personality type test and of courses related to anatomy. And then, we analysed those results.

As a result, personality type was similar to the distribution of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study achievements by personality type.

We concluded that we should not predict study achievement by using personality type. And we should recognize personality types only as personality traits to utilize for student guidance, study guidance,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 etc.

Keywords : MBTI, Personality type, Anatomy, Academic achievement